

고향 놔두고 타지역 취업 알아보는 나, 비정상인가요?



5·18, 문화도시, 취업... 청년들의 생각을 엿보다

저항·자유·이념·열정...

이들 단어는 '청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삼포'(결혼·연애·출산포기), '이태백'(이십대 태백이 백수), '삼일절'(서른 한 살까지 취업 못하면 길이 막힌다), '공시폐인'(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에 지친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청년'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주변인들로부터 '취업 합격'이라는 빈말을 들어도 가슴이 뛰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는 청년들이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는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까.

광주일보는 창사 63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5명에게 광주·전남의 미래에 대한 길을 물었다.

박근성(26·조선대 경영학부), 이현준(26·조선대 정보통신공학과), 조성근(25·전남대 영어영문학과), 이화진(여·24·조선대 러시아어학과), 정안선(여·23·전남대 경영학과)씨 등은 지난 12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안전을 각자 한 건씩 정한 뒤 비정상회담을 가졌다.

평균 나이 24세. 다니는 학교는 서로 달라도 아낌 없이 몸과 마음을 던졌던 사람. 수렴 같은 실연,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통해 성장한 우리 시대 평범한 청년들이다.

광주·전남 미래의 주역을 꿈꾸는 그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딱 부러지는 주장 속에 숨겨 둔 열정은 여느 청년들과 다름없었다.



이화진

아시아문화전당
지갑 열게 할
공연·전시 기대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공짜표'가 아니어도 지갑을 열어 공연·전시를 보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와 시설 유치가 절실하다.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 비엔날레, 아트광주 등 관 주도 문화사업에 '쿼터제'를 도입하는 안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문제다. 5조원 예산을 들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도 결국 일자리 창출로 귀결돼야 한다. 전담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정규직 423명을 포함해 1000명 규모인데 공무원 시험처럼 문화전당 채용도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출신 작가가 지역 예술가의 설 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지 우려에 대해서는 토속문화를 꾸준히 발굴·유지하려는 노력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2013년 20대를 위한 문화기획단체 '청년문화화하브' 등 광주지역에서 청년문화단체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경향은 바람직하다.



5·18 왜곡 대처
광주 시민부터
의미 정립해야

이현준

◇안건 1.(현준) 5·18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강원도 속초시에서 살다 광주로 대학을 간 신입생 때 학교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피로 얼룩진 처참한 사진과 진상 규명과 정부 책임을 묻는 선전물을 보고 5·18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청년 극우주의를 표방하는 '일베'의 5·18 왜곡·비하하는 광주 시민부터 5·18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기도 했다. 기성세대나 매체의 영향으로 '광주 사태'로 혼동해 부르는 모습도 자주 발견됐다.

▲근성=5·18 당시 10~20대였던 민주투사는 현재 50~60대가 됐다. 이들은 청년에게 5·18의 과정을 물려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청년들은 대학과 5·18기념재단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에 참여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3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18레드페스타' 등 행사와 학술대회에 단순히 인증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다른 지역 대학생 단체가 5·18주간에 유적을 순례하면서 하나의 축제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 광주시민인데도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게 속상하다.

▲성근=인도, 버마(미얀마) 등 아시아 민주화운동 역사에 5·18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5·18의 위상과 결맞지 않게 특정 정당 사이의 정치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것이 안타깝다. '남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시민의 온 힘을 보태는 것도 모자란데 무분별하게 생겨난 5월 단체들끼리 이런 다툼을 하는 모습은 '그들만의 리그'를 연상케 한다. 이전 투구를 했던 지난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 5월 정신을 공유하는 대화합을 이뤄야 한다.



문화도시 광주?
대표문화가
무엇인가요?

정안선

◇안건 2.(안선) '문화도시 광주'를 '들보잡'(들도 보도 못한 잡말)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언제부터인가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불리는데 실감할 수 없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우선돼야 한다. 뚜렷한 성장 산업이 없는 지역에 문화를 갖다 붙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가까운 예로 50억원을 들인 '광주폴리'의 경우 홍보와 관리가 부실해 광주시 문화행정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엿볼 수 있었다.

▲화진=인프라가 충분치 않는데도 아시아의 문화 '하브'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2년 전 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의 공연을 감내중전벤션센터에서 봤다. 출연자가 안쓰러울 정도로 당시 음향·조명·객석 배치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본



박근성

일자리 부족해
다른 지역 취업
할 수 밖에 없어

◇안건 3.(근성·성근) 내 고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

광주에서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다. 수십만 원 비용을 들어가며 새벽차를 타고 서울 대기업 전형을 보러가는가 하면, 방학에 토익·공무원·대기업 채용시험과 대학 편입 준비를 위해 서울로 강의원정에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진=올해 1분기 광주·전남 사업체는 1만 83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일자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졸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는 심각하다. 지난해 전남대·조선대의 취업률은 각각 51.5%·55.4%로 졸업자 절반이 취준생(취업 준비생)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인업체의 96%는(1만7578명 구인)은 근로자 300인 미만이었다. 건설·생산직(6801명), 판매·개인서비스직(5608)이 대부분인 광주·전남 일자리 시장에서 대학 전공을 살리기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광주·전남 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급여는 낮았지만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평균 월급은 광주 249만3000원·전남 278만원·서울 320만원·울산 295만2000원인데 월 평균 근무시간은 광주 186.5시간·전남 188.7시간·서울 178.9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많지 않다는 것이다.



조성근

혁신도시 기관
지역 인재 적극
채용해주길

▲성근=대기업에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과 취업비용, 집세까지 수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가 허덕이는 빚쟁이로 전락한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인재유출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 기관과 협력업체 등이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리=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재기 발랄한 청년 5인방이 뭉쳤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안전을 정해온 뒤 '끝장 토론'을 벌였다.

창사 63주년

탑인프라는 미래를 향한 길이며, 그 길위의 주인공은 바로 고객입니다.

- 국내 최초** 경사가변형 지지대 특허 시공 - 고정지지대에 비해 5~7% 효율 향상
2006년 태양광사업에 진입하여 현재까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실적 보유 - 500개소 약 204MW 시공
- 국내 최고** 국내 최고수준의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 무선헬기를 이용한 발전소 유지관리
 - 자체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관리
 - 전국 120개소 약 40MW 유지관리 중

토목 건축/전기 시공

- 인간친화적 시공 품질관리
- 하도급 업체 현금성 결제 100% 우수업체 지속

신뢰와 혁신의 기업
탑인프라 TOPINFRA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69 (대촌동 959-51)
Tel, 1800-6069 Fax, 062-574-9088
www.topinfra.co.kr